

여수광양항만, 제1기 ‘YG Rovigator’출범

로테르담형 여수·광양항 실현 위한 학습 동아리 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사내 학습동아리인 YG Rovigator(로비게이터) 제1기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YG Rovigator는 로테르담형 여수·광양항 실현을 위해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학습동아리로 ‘로테르담(Rotterdam)’과 ‘네비게이터(Navigator)’를 합성한 말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통해 여수·광양항을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사는 로테르담항의 과거, 현재, 미래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역사, 문화 등 로테르담항과 관련된 모

든 부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여수·광양항의 발전상을 모색하고자 이 동아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YG Rovigator 제1기는 지난달 총 4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1회 학습모임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달에는 로테르담 현지에서 일주일간 항만전문가 교육프로그램(2019년 Port Management Program)을 이수하고 항만시설 및 기관을 시찰할 예정이다.

차민식 사장은 “YG Rovigator 1기 출범은 로테르담형 여수·광양항 실현을 위한 뜻깊은 첫 발걸음”이라며 “국내 최초로 참석하는 항만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쌓고 정부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9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로테르담

형 여수·광양항 실현 연구모임’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문석 기자



순천농협, 태풍 피해벼 산물 수매 나선다

“피해 농가의 시름과 노동력 절감에 앞장설 것”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재)는 ‘2019년산 태풍(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제18호 미탁)으로 쓰러진 벼에 대해 공공비축 산물벼 형태로 10월 15일부터 보름간 도사 DSC(벼긴조저장시설)에서 수매하여 농가지원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태풍 피해벼에 대한 매입 관련 지침을 통해 품종제한이 없으며 농가가 포대 벼(튼백 포함)로 직접 출하 또는 지역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특성을 감안하여 산물 또는 건조벼 상태로 매입 가능하며, 향후 매입가격은 벼 상태·품질과 재현율, 피해립 등 피해상황에 따라 감안하여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을 우선 매입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쌀 값이 확정 된 후 연말까지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내 순천지역은 태풍으로 인한 쓰러진 벼 중 수밭아, 흑수, 백수 등 1,300ha의 피해면적과 1,000여 농가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일반벼 산물수매와 별도로 태풍 피해벼에 대한 산물 수매를 최종 결정하다.

순천농협 관계자는 “쓰러진 벼의 경우

RPC(DSC 포함) 시설에서 산물 수매 시 많은 이물질(썩쟁이, 흙 등)이 기계 속으로 혼입되고, 특히 일반벼와 섞이지 않도록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등 민감한 기계 장치의 핵심부품 고장과 수리비 발생과 함께 많은 우려와 부담이 예상되지만 피해 농가의 시름과 노동력 절감에 농협이 앞장 서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다.

강성재 조합장은 “연이은 태풍 피해로 인해 많은 벼 재배 농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급차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농협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며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조금이나마 농민의 아픔을 덜어드리고 농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농협은 관내 태풍 피해벼 산물벼 매입시기는 도사 DSC에서 ‘19.10.15(화) ~ 10.31(목)까지 수매 할 계획이며 농가와의 도복 피해배 매입협약서 등 충분한 안내 및 설명을 통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문석 기자

전남TP,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2단계 순항

“뿌리산업 저변확대·기술력

강화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전남 뿌리산업의 저변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이 2단계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 10월 10일 밝혔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81억원의 규모로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94개사 기업을 지원하여 매출액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전경.

358억원 증가와 더불어 지원기업 신규고용 창출 108명의 성과를 낸 바 있다.

2019년도 사업은 지난 6월부터 공모를 통해 기술개발사업 및 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였고, 사업화지원은 모집공고를 통해 시제품 제작지원, 제조환경 ACE화지원 등의 지원프로그램에 19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중에 있다.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는 10월 중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하여 뿌리기업 사업화지원을 위해 추가 기업지원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은 “전남의 뿌리산업의 저변확대와 관련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석 기자

순천경찰서, 시의원 초청 치안정책설명회

순천시의회와 함께하는 공동체치안 활성화 기대

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지난 10. 15. 경찰서 팔마마루에서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16명을 초청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순천 만들기를 위한 치안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순천경찰서 관내 치안현황과 추진 중인 주요시책을 순천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에게 공유, 소개하며, 지역 발전과 치안 확립을 위한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순천경찰은 ‘존중·엄정·협력·공감’의 4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각종 치안시책에 대하여 영상

자료와 함께 브리핑을 실시하고, 112 종합상황실 견학과 구내식당 오찬을 함께 하며 시의원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정진 시의장은 “순천경찰서에서 시의원을 초청하여 치안 설명회를 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순천시와 시민을 위한 순천경찰의 추진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재호 서장은 바쁜 의정에도 참석해주신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를 통해 시의회와



순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16명을 초청, 치안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찰서가 진정 주민을 위하고 보다 살기 좋은 순천시를 만드는데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부

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에게 믿음주고 사랑받는 순천경찰이 되겠다”고 하였다.

전효성 기자



전남테크노파크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해 광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남테크노파크-광주은행 업무협약 체결

목포 대양산단 입주기업 지원 한마음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광주은행과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와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월 14일 전남테크노파크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전남테크노파크가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 유망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기업의 발굴 및 자금조달 지원한다. 전남테크노파크는 대양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지원과 현장 방문컨설팅 등 맞춤형 기업성장 지원을 한다.

특히, 업무협약을 통해 목포 대양산단

에 투자유치된 기술유망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서비스와 전남테크노파크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 전남형 중소기업육성사업, 세라믹산업융합지원센터 R&D지원 등을 양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목포 대양산단 입주기업들이 우선으로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과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금융기관과 기업지원 혁신기관이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문석 기자

순천강남라이온스클럽, 나눔 봉사 전개

송광면 소외계층 대상 도배·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활동 추진



순천강남라이온스클럽은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순천시 송광면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순천시 송광면에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관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따뜻한 행복 보금

자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구성된 송광면 복지기동대에서 대상가구를 추천하고 순천강남라이온스클럽(회장 류승석) 후원에 따라 이뤄졌다.

봉사단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3세대의 도배·장판, 새시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독거노인의 안부도 살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라이온스 회원들은 “몇집있으면 추위질 텐데 잔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새시를 교체하고 도배 장판을 새로 해드려 마음이 놓인다”고 봉사소감을 전했다. .

강승일 송광면장은 “어려운 이웃이 좋은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류승석 회장님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수현 기자

용당 실버합창단, 실버 페스티벌 ‘동상’ 수상

지난 10월 7일 진주시 남강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에서 순천시 노인복종합복지관 대표로 출전한 ‘용당실버합창단’이 동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은 사단법인 다사랑봉사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2005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경연은 개인부문(소중환 실버부문)과 단체부문(다복한 실버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7개 팀이 출전한 예선전을 거쳐 본선

에 진출한 8개 팀과 열띤 경쟁을 펼친 용당 실버합창단은 가수 이연실의‘목로주점’과 조영남의‘화개장터’를 불러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악천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용당 실버 합창단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당 실버합창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다양한 지역행사서 문화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순이 기자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치포럼 개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송경환)는 18일(금) 15시 순천시 시민협력센터(2층)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본 주민자치회의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부터 6개면과 2개 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마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조직으로 봉사단체를 넘어 ‘읍면동 의회’역할을 수행해 주민참여, 자치, 결정권이 강화되는 참여민주주의의 플랫폼이며, 실질적 자치권 확대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자치포럼은 주민참여와 결정권이 강화되고 주민자치가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체계 보장이 이뤄지고 있는지 순천시에서 실행되었던 조례제정-시범실시-주민총회의 일련의 과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자리다. 발제 주제는 ‘주민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와 ‘순천시 주민자치회 사례’로 하태영 사무관(행정안전부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추진단)과 김서하 팀장(순천시 자치혁신과)이 각각 발표한다.

정순이 기자